

LGU+, 유심 교체 200만건 기록... 연말까지 무상제공

알뜰폰 포함 전 고객 대상 목표 eSIM에 난수화된 IMSI 체계 적용 내년 7월 ISMS-P 인증 의무화

LG유플러스가 유심(USIM) 무료 교체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통신업계의 잇따른 해킹 등 보안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된 여파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유심 교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 간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 당시 회사는 유심 칩 안에 등록하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의 설계 방식에 보안상 취약점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무료 교체를 추진했다. 15자리 숫자로 구성된 IMSI는 이동통신사가 사용자를 식별하는데 쓰



LG유플러스가 유심(USIM) 무료 교체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췁GPT

는 번호다.

보안상 주목된 문제 요인은 난수 번호다. 이는 무작위로 추출한 숫자 조합으로, 해킹이나 도용 방지에 유리하다. 당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IMSI 발급에 활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회사 측은 "올해 4월부터 발급한 이

(eSIM) 등 전 매체는 난수화된 IMSI를 적용했다"며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심 교체 누적 처리율은 12% 수준이다.

교체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타인의 유심 정보를 복제한 뒤 문자 인증을 가로채 금융 계정을 탈취하는 '심스와핑' 등 해외 범죄 사례가 속속 공개되면서다. 다만 유심 내 핵심 암호화 비밀키인 '키값'에 의해 난수 번호를 뚫고 곧바로 해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심은 가입자 식별 정보와 금융 플랫폼 보안 확인에 활용하는 인증 정보가 들어있어 보안문제와 직결된다. 가입자들은 각 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용해 외부에서 유심 재발급을 위해 시도하는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기준

이 엄격해진다. 내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이 의무화된다. 이는 해킹 대응 체계와 개인정보 암호화, 사고 대응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 이후 기업의 보안 체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국내 이동 통신사의 가입자 식별 체계 보안도 강화된다. 연내 상용화를 앞둔 5G SA 환경에서는 모든 단말기에 암호화한 가입자 식별값(SUCI)을 권장한다. 기존 IMSI 식별값보다 외부 노출 가능성을 낮춰 보안 강도를 높인 체계다.

한편, 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는 공식 앱 또는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CNS, 컬리와 스마트 물류 고도화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검토 입고·출고 등 전 과정 효율화

LG CNS가 로봇을 활용한 물류 혁신에 나선다. 컬리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로봇 운영 플랫폼 '피지컬웍스'도 현장에 적용한다.

LG CNS는 컬리와 물류 자동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적용성 검증 ▲물류 자동화 솔루션 개발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등을 추진한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념검증(PoC)을 거쳐 작업자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물류 업무를 발굴할 예정이다.

LG CNS가 최근 선보인 '피지컬웍스'도 현장 적용성을 검토한다. 로봇의 작업 정확도와 수행 속도, 효율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한다.

자동화 설비와 물류 운영 시스템을 통합해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전 과정



박상균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전무, 왼쪽 여섯번째)과 이준호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전무, 왼쪽 다섯번째)가 컬리 COO 허태영 부사장(왼쪽 네번째) 등 경영진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LG CNS

효율화한다.

앞서 김포·창원 물류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셋별 배송을 위한 물류 노하우를 확보했다. 상온·냉장·냉동 환경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기술도 구현할 수 있다.

컬리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허태영 부사장은 "LG CNS의 첨단 피지컬 AI 기술력과 현장 데이터를 연결해 물류

현장의 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 CNS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 박상균 전무는 "컬리가 보유한 물류 운영 노하우와 LG CNS의 기술 역량이 결합돼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의 의미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민선 기자

SK텔링크, 대형 선사에 스타링크 도입

통합 솔루션 모델 통해 차별화

SK텔링크는 국내 대형 선사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 공급 대상은 HMM, 팬오션,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 KSS해운 등 대형 선사다. 회사 측은 운영 선단 전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이번 계약을 통해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해운업계에서 신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 솔루션 모델을 통해 차별화했다.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인 기존 정지궤도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의 지연과 250 Mbps급 속도를 제공한다. 또 통합위협관리(UTM)를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체계

를 통신망과 통합 설계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제공에 앞서 SK텔링크는 해운사의 보안 요구 사항을 인프라 설계 전 미리 반영하는 '선 컨설팅 통합 구축' 방식을 택했다. 계약 이전부터 선사의 운항 노선과 업무 특성을 분석해 상용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즉시 가동한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직접 보안업체와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통합솔루션 모델은 조선, 해양플랜트, 국방 영역 등으로 확대한다. 또 SK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사의 양자 암호 보안, AI 데이터 분석, CCTV 안전 관제 등 그룹 역량도 단계적으로 결합해 부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넷마블 '왕좌의 게임', 첫날 1.7만명 몰려

오는 21일 모바일 출시

넷마블의 신작 역할수행게임(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가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PC 플랫폼에 먼저 공개된 이 게임은 첫날부터 이용자가 대거 몰렸다. 오는 21일 모바일 출시를 앞두고 흥행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8일 글로벌 게임 통계 사이트 스타미터베이스에 따르면 이 게임은 출시 첫날 최고 동시접속자 수 1만7224명을 기록했다.

이용자 반응도 좋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 등록된 리뷰 2000여 건 중 71%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즌4를 배경으로 개발된 오픈월드 액션 RPG다. 넷마블이 워너브라더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HBO의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발했다.

게임은 ▲왕좌의 게임 세계관을 활용한 서사 ▲오픈월드로 구현한 웨스트로스 ▲사실적인 액션 ▲원작 IP에서 영감을 받은 3개의 클래스(기사·용병·암살자) 등을 핵심 게임성으로 내세웠다.

현재 넷마블 런처와 스팀, 에픽게임즈



넷마블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이미지.

/넷마블

스토어 등 PC 플랫폼을 통해 먼저 서비스되고 있으며, 오는 21일 오전 10시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구글 플레이 게임을 통해 모바일 버전이 그랜드 론칭된다. 모든 플랫폼 계정은 상호 연동된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넷마블의 2분기 실적 모멘텀을 이끌 핵심 타이틀이 기도 하다.

넷마블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6517억원, 영업이익 5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6.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109억원으로 163% 늘었다.

넷마블은 2분기에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에 이어 6월 '솔: 인첸트'를 잇따라 선보이며 신작 모멘텀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넥슨 계정, 네이버 로그인으로 전환 가능

기존 게임 플레이 기록 등 유지

네이버와 넥슨이 계정·결제 데이터를 연동해 게임 이용자 대상 개인화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넥슨 이용자가 네이버 로그인 회원'으로 전환하면 앞으로 게임 캐시 충전 등 결제 시 기존 넥슨 결제창 대신 네이버페이 기반 결제창을 이용하게 된다.

네이버와 넥슨은 18일 '네이버 로그인 회원' 전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동으로 넥슨 이용자는 네이버 로그인 기반으로 게임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기존 넥슨 계정을 네이버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에도 기존 게임 플레이 기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네이버 로그인 회원으로 전환하면



넥슨 내 결제 화면이 네이버페이 기반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전환 이후에는 네이버페이 기반 결제창 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로그인 전환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결제창 안에서 네이버페이 미니 충전결제와 계좌·카드 간편결제, 일반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컬처랜드·티머니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전환을 단순 로그인 연동이 아닌 통합 사용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뉴스

SKT, 뉴스룸서 AI 혁신사례 소개

'굿 체인지' 캠페인 진행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은 '굿 체인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 전환(AI)·고객 가치 혁신(CX)을 실천하기 위한 뉴스룸 장기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타운홀 미팅에서 "AI를 통한 업무 혁신과 CX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뉴스룸에서 AI 전환과 고객 가치 혁신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구성은 ▲Insight(인사이트) ▲Makers(메이커스) ▲참여형 이벤트 시리즈 등이다.

/조민선 기자